

17.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도시주택본부장)
- 회부일자 : 2007년 11월 6일
- 심 사
 - 대구광역시의회 제166회 임시회
 - 제4차 건설환경위원회(2008. 2. 21) : 수정안 가결

2. 주요골자

가. 공사명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당초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 변경 :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함(안 제7조).

-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토지개발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

다.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손익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함(안 제27조).

3. 근거법령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4.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도시주택본부장 박대녕)

□ 이번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 공사가 창사20주년을 맞이하여 미래지향·고객지향
 - 환경친화적인 일류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사명을 변경하고,
- 「지방공기업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에 근거한 신규 업무추진을 위해 사업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 이익금 처리에 관련한 회계용어와 처리기준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통일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첫째, 공사명칭을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로 개정하면서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 둘째, 공사 설치 조례 제7조제1호와 제2호는 사업 내용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주택의 건설·임대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과 「지방공기업법상의 토지개발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셋째, 공사 설치 조례 제7조제5호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회복을 위해 광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2005. 12. 30) 됨에 따라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설하였고,

- 넷째, 공사 설치 조례 제7조제8호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추가 하였음.
- 다섯째, 공사 설치 조례 제7조제9호와 제8조는 해외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이에따라 대구시 일원으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 구역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타 시 도지사가 개발을 의뢰하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추가 하였음.
- 여섯째, 공사 설치 조례 제27조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61조에서 정하는 이익준비금의 최소 적립기준이 종전의 2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으로 변경하였음.

5. 검토보고 요지(보고 : 전문위원 하재열)

□ 본 조례 개정안은,

- 공사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도시공사로 변경하고, 관광사업, 해외투자 등 사업 범위의 확대 조정과 손익금 관련조항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를 대구도시공사로 명칭 변경 하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주택 건설·임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의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사업 제외)과 해외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음.
 - 안 제27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손익금의 처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음.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공사명 개정은 그동안 “개발”을 표방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창조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창출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 시·도에서도 변경하는 추세에 있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 SH공사(Seoul Housing), 광주광역시도시개발공사 → 광주도시공사, 경기도도시개발공사 → 경기지방공사,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부산도시공사) 이는 시대변화에 맞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나 공사명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및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중 관광사업은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제안되어 심의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으나, 새정부의 한반도대운하계획에 따른 낙동강연안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재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 안 제7조 제8호는 너무 포괄적인 점도 있어 관광단지 조성 또는 리조트 조성사업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됨.

※ 타시도 사례

- 부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 인천 :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 경기 : 관광·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 경북 : 관광지 및 관광단지, 리조트, 휴게소 등의 조성 및 임대관리사업 기타 경남, 전남, 충북, 울산 등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업 범위 확대는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사업범위에 포함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됨.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개발사업 참여는 미래의 경영여건 확충과 지속적 수익창출을 위해 진취적으로 도전할 만한 사업영역이라고 생각되나 글로벌경영 조건에 걸 맞는 내부역량이 우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손익금 관련조항은 현행 조례상의 결산결과 이익금의 1/20 이상을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1/10이상 적립)에 위배되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되겠음.
- 안 제27조 제1항 3호의 ‘이익배당’ 신설은 도시개발공사가 이익 발생시 이익준비금 적립 후 (전액)출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 배당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본조례안과 관련하여

- 2007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음.

6. 질의·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현 자본금 상태로 다양한 사업을 하기엔 부족하다는데는 동의함. 자본금 증가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금 증가는 필수적임. 자본금을 20배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경영상 문제가 있고, 해외사업이나 관광사업은 민간·외국자본 유치를 통해 하기 때문에 출자만 하면 되므로 자본금 증가는 불필요한 사항임.
○ 도개공의 사업영역을 넓혀 놓았을 때 경영능력이나 책임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됨.	○ 개발·투자는 위험이 필수적으로 따르고 실패한 사례도 많음. 사업시에 출자비율을 낮추는 등 위험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음.
○ 공기업은 공공성과 공익성, 수익성이 잘 조화돼야 할 것. 관광사업은 지방관광청이 없어 도개공이 검토해 볼 만 하나 해외투자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지금 당장 해외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님. 현재 공단의 경우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고 토지공사의 제의도 있는 등 참여 가능성을 넓혀두고자 하는 것임.
○ 사업준비금 처리와 관련하여 도개공에서 대구시에 이익을 배당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나 사기업과 같음. 이익 배당 근거를 만든 특별한 근거가 있는 지?	○ 상위법의 근거와 부합되지 않는 것은 조정하고, 정관에 의하여 대구시에 이익 배당금을 주던 것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질 의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공사의 명칭개정은 적절한 것 같으나 영문표기는 시민들에게 전달력이 좀 약하고, 로고의 이미지도 상징성이 좀 부족해 보임. ○ 사업영역 확장과 관련하여 제7조 4호 중 도심 활성화를 선도하고 공사설립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개정안에 누락된 이유는? ○ 제7조 8호의 체육시설업과 관광사업은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는 도개공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관광사업은 민간에 맡기고 도개공은 공공성,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만 집중해야 하고 관광사업도 부산과 같이 조성사업에만 한정하는 것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은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는 것이고 영문표기는 다각적 검토 끝에 "DUCO"로 한 것이며, 명칭확정 후 로고를 개발할 예정임. ○ 제7조 4호에 도정법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맞겠음. ○ 8호 체육시설업은 현행 9호의 내용에 있던 내용이며, 관광진흥법상 사업범위를 축소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임. ○ 관광, 레저사업의 개발에만 참여하고 관리는 투자자 등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는 동의함.

7.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안 제7조 4호에 빠져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 8호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수정안을 동의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